

# 5·18기념사업 정부 지원 '미온적'

## “민주유공자 보상법 등 선언적 수준...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시급”

### 5·18재단 “연구소 설립·문화예술기금 등 필요”

5·18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체계가 없어 5·18 광주중항쟁 관련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목소리가 높다.

5·18기념재단은 1일 “5·18기념사업 관련 현행 3개 법률은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사업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보완 입법 및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민주유공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5·18 사업추진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단 두 줄로만 명시하고 있고, ‘5·18민주화운동 등

에 관한 특별법’ 역시 제5조에서 ‘정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고작 한 문장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난 2002년 제정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1995년에 작성한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는 실정으로 “3가지 법률 모두가 시행령 등 하위 세부규정에서 5·18기념사업을 언급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추진의지를 의식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매 사업마다 정부 지원은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은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5·18정신 계승 투쟁을 외면하고 지역적으로 축소, 고립시키고 있고 피해 보상금과 기념사업비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라며 “5·18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의 5·18에 대한 밀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5·18 정신의 학문적, 문화적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 문화예술기금 등 무형적 기념사업 등을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또 “5·18아카이브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국군통합병원·505 기무사 옛터·광주교도소 터 개발 등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기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입법이 요구된다”며 “기념사업이 국가사유인 만큼 관련 개별법 제정 등 입법 보완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 표명과 이에 따른 광주시의 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선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가칭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법률’ 등을 만들어 현행 단계적·구결식 사업 진행을 개선, 거국적·체계적인 기념사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광주시도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반 대회에는 경기 뿐만 아니라 고등비행 훈련기 T-50 단기 기동 시범과 항공 구조사 헬기구조 시범, 제2스쿼드와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선보인다.

# “함평 양민학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

## 광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1950년 한국전쟁 막바지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됐던 함평군 원아면·해보면 일대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최근 1950년 11월~1951년 1월 사이 국군 제11사단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 윤모(74)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으로 희생자에 대해서는 1억원, 희생자 배우자는 5000만원, 희생자 부모 또는 자녀는 각각 1000만원,

희생자 형제 및 자매는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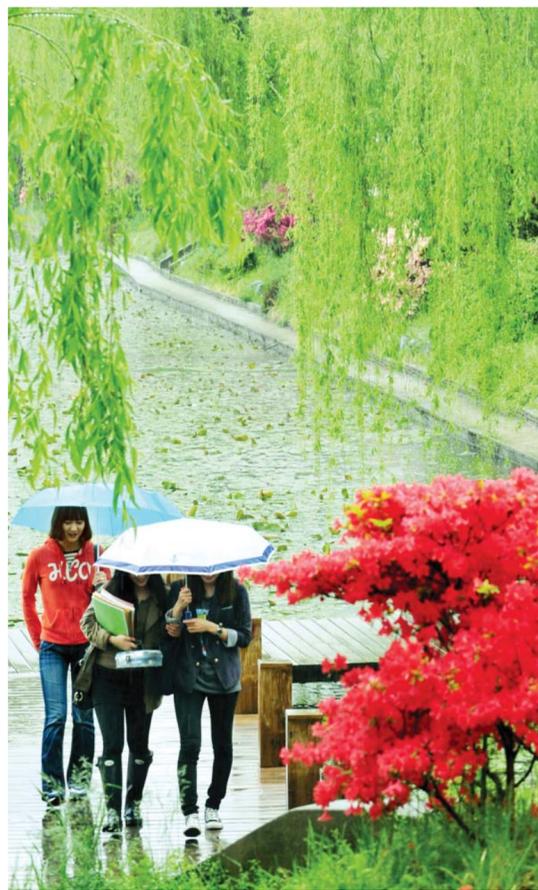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이 군인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살해됨에 따라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유족들은 ‘빨치산 협력자’로 낙인찍혀 사회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아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군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7월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

인들이 1950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 빨치산 협력자라는 누명을 씌워 함평군 일대 주민 249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11사단은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작전명의로 빨치산 토벌 작전을 전개하던 중 무고한 양민을 집단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인들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를 무차별 사살했으며, 2009년 7월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서 안매장 된 유골 100여 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지난 2010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촉촉한 캠퍼스

봄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신 1일 여대생들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용지 호수를 거닐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CT·MRI검사 보험수가 인하 재추진

## 복지부 7월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장치),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의 검사 건강보험 수가를 이르면 7월부터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다가 법원의 고시 취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던 영상 검사의

수가 인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최근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4차례 회의를 갖고 인하 폭을 논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승소해 이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하폭을 결정, 이르면 7월부터 재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45개 병·의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는 수가 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0월 1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승소해 이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하폭을 결정, 이르면 7월부터 재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오늘 날씨

오전까지 봄비

광주	흐리고 비	17/24°C
목포	흐리고 가끔 비	16/22°C
여수	흐리고 비	16/20°C
나주	흐리고 비	16/24°C
완도	흐리고 비	16/22°C
구례	흐리고 비	16/24°C
강진	흐리고 비	16/23°C
해남	흐리고 비	17/23°C
장흥	흐리고 비	17/23°C
순천	흐리고 비	16/23°C
영광	흐리고 비	16/24°C
진도	흐리고 가끔 비	17/23°C
전주	흐리고 가끔 비	16/26°C
군산	흐리고 가끔 비	16/26°C
남원	흐리고 가끔 비	16/25°C
홍산도	흐리고 가끔 비	15/24°C

〈오전〉 바다	중랑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경고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오후〉 바다	중랑	파고	미물	쌀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목욕	10:34	03:5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23:13	16:2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여수	05:51	12:0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m		18:30	00:00

◇주간날씨

날짜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6/24	14/25	13/24	12/24	14/25	15/26

# 국립대학 총장 임용 추천위 교직원·학생도 참여

앞으로 부교수 이상 교원 외에 교직원과 학생도 국립대학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대학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현재 32개 국립대가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시 학과 인사가 25% 이상, 여성 위원이 20%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대 등 법학대학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지난 3월 1차 간선선거를 통한 박정수(의대 병리학교실), 윤택립(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이병택(공대 신소재공학부) 후보 등 3명이 경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19대 총장 선거는 오는 5월23일 치러진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북구, 15일까지

광주시 북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15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청년 창업, 연령층별

일자리 창출,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및 활성화, 공공부문 생산적 일자리 창출방안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북구 홈페이지 주민제안코너 제안서식으로 홈페이지(참여마당)와 우편, FAX, 직접방문으로도 가능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오전 8시 & 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3일**

선박 목포-제주도 **판매가 ₩139,000~ 실속 ₩109,000~**

장흥-제주도 **판매가 ₩159,000~ 실속 ₩149,000~**

선박+항공 목포+무안공항 ₩139,000~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

울릉도 2박 3일 ₩325,000~

홍도, 흑산도 1박 2일 ₩294,000~

1박 2일 ₩189,000~

시티투어 & 스타크루즈와 울릉공의 만남 6일 ₩1,090,000~

특징: 5대특식 3성급호텔, 시티투어, 모노레일탑승, 프로폴리스 치약1개 제공(객실당)

불포함: 유류할증료 (₩350,000), 기사&가이드팁(₩60)

##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기~~!!

4일 구중산 빌라형동나루문도 (출발확정) ₩369,000

출발일: 5/6, 9, 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4일 구중산 철쭉 축제 등반 ₩429,000

출발일: 6/6, 23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4일 일본 전통료칸 스키유 마을 온천 즐기기 ₩499,000

출발일: 5/6, 9, 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4일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519,000

출발일: 5/6, 9, 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품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4일 출발일: 5/16 ₩899,000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실속]오사카, 교토, 고베 ₩699,000

3일 출발일: 5/16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기사&가이드팁

황금연휴에 떠나는 대만여행

[무안-대만] 전세계 '5월26일' 딱, 하루!!

✈ 항공사: 중화항공 (C항공) 5월26일(토) 출발: 무안 → 대만 [07:30 - 09:00]

✈ 항공스케줄 5월28일(월) 도착: 대만 → 무안 [19:30 - 23:00]

##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포르/바탐 3박 5일 (상해경유)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국비(10\$), 매니팅

##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4일 무안-북경/평요/면산 ₩869,000~

5일 무안-북경/평요/면산 ₩919,000~

4일 무안-상해/장가계 ₩899,000~

(※4/23-출발확정) 불포함: 개인경비, 중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5일 무안-상해/장가계/주가가 (※5/17-출발확정) ₩1,150,000~

※ ALL포함, 무안출 · 도착기준

4일 무안-북경/만리장성 ₩429,000~

5일 무안-북경/만리장성 ₩499,000~

5일 무안-상해, 장가계, 원가계, 주가가 ₩1,299,000~

5일 무안-상해, 황주, 황산 ₩7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20,800), 단체비자, 가이드&기사팁

##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알뜰 ₩839,000~

실속 ₩789,000~

품격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니팅

##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3박 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3박 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4박 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니팅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년이상 영업보유증 가입 / 여행계약 기입업체 \*교통편: 항공 및 선박, 호텔/숙박 \*관광: 2년이상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유 가입(예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 교통, 숙박, 식사, 호텔, 렌탈비, 기타 \*최소 출발인원: 성당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